

# 하늘사랑

www.kma.go.kr Vol.385

2013. July 7

풍경이 있는 날씨촌  
보고 느끼고 맛본 '힐링 제주'

날씨 에세이  
장마철 건강관리 비법  
날씨, 패션의 꽃을 피우다

열린마당  
Ah~ I'm a 웨더맨!





「바다 위의 소나기」 황은숙님 작품

2012 기상사진전 장려상

'집중호우'란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돌발적인 현상을 말한다.

집중호우가 발생하려면, 많은 양의 수증기를 가진 더운 공기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기온이 높은 6월 말부터 8월 사이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지구온난화에 따라 발생빈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마나 태풍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기상정보를 확인해서 즐겁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는 것이 좋다.



July 7



## Contents

### KMA Special Issue

- 풍경이 있는 날씨촌 룡다리? No~ 농다리! · 02
- 낮보다 밤이 화려한 도시 '홍콩' · 04
- 보고 느끼고 맛본 '힐링 제주' · 06
- 날씨 에세이 장마철 건강관리 비법 · 08
- 날씨, 패션의 꽃을 피우다 · 10

### KMA About

- 열린마당 Ah~ I'm a 웨더맨! · 12
- 낮 놓고 '기'이 뭐가요? · 14
- '기후캠프' 최우수동아리의 성공 비결! · 16
- 특명! 제주도를 탈출하라 · 18
- Shall we dance? · 20
-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 22
- 포커스 기상기후자료로 창조경제의 물꼬를 트자 · 24
- 2030 솔로탈출 내 마음 속의 '반창꼬' · 26

### KMA Hope

- 공익광고 일상고발 1398 · 28
- 날씨만화 지진정보 알리미 · 29
- 포토뉴스 · 30
- 퀴즈 · 32



가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거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ri.or.kr

2013년 7월호(통권 385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66 팩스 (02)836-5472  
E-mail kimhy80@korea.kr 발행일자 2013년 7월 10일 편집기획 대변인실 발행처 기상청 발행인 이일수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편집장 나득균 편집 대변인실  
디자인/인쇄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31)906-7735



# 룽다리? NO~ 농다리!



김미주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

서울에서 자동차로 한 시간 반 남짓. 경부와 중부고속도로를 번갈아 타면 금방 충청북도 중북부에 위치한 진천에 도착한다. 다소 생소한 지명이지만, 김유신의 탄생지이자 곳곳마다 문화유산과 자연 경관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다.

진천은 예로부터 인심이 후하고 살기가 좋아, 살아서 머물 만한 고을이란 뜻을 가진 '생거진천'으로 불리어 왔다. 또한 수해와 냉해가 없고 농사도 잘 되어 맛있는 쌀로도 유명한 곳이다. 비옥한 땅에서 수확한 쌀은 '쌀의 최고봉'이라 일컫는 이천의 쌀과 맛먹을 정도의 풍미를 지니고 있어, 진천 어디에서든 저렴한 가격에 맛 좋은 쌀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진천의 볼거리로 손꼽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기다란 지네 모양의 돌다리이다.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진천에 다다를 때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이 진천 농교이다. 길어서 '룽다리'가 아닌, 한자로 '엷을 농'을 써서 돌덩이들을 엮어 만든 다리라하여 일명 '농다리'라 불린다.



어느덧 나도 생거진천에서 지낸지 3년이 넘어간다. 진천의 관광명소는 다 가보았지만, 나에겐 진천 농다리가 관광지답지 않은 자연의 여유로움과 마음의 풍요를 주는 장소로 최고다. 그래서 항상 친구들이 찾아오면, 꼭 농다리로 데려가곤 한다. 하지만 멀리서 온 친구들은 “고작 돌로 만든 다리가 뭐가 그리 대단해?”라거나, “여긴 구경할 곳이 그렇게 없는 거야?”라며 핀잔을 주기 일쑤다.

그래서 이 돌다리가 무려 천년의 세월을 견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라며 그 역사를 알려주면, 다시금 금덩이 보듯 돌덩이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본다. 그러곤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다리가 버틸 수 있냐며 신기해한다. 정말 거슬러 상상하기도 힘든 수많은 세월을 뛰어넘은 돌다리는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

밟으면 조금씩 흔들리는 까닭에 혹시 매년 다리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돌다리 초입에 위치한 농다리전 시관 소개 자료를 보면, 농다리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가 있다. 총 길이 94m, 폭 3.6m, 두께 1.2m의 농다리는 교각의 양쪽을 유선형으로 만들어 물의 흐름이 아주 원활하고 마찰 저항이 적다.

돌덩이들끼리 고정시키는 석회를 바르지 않고 자연석을 그대로 쌓아 틈새는 작은 돌로 메웠다. 2008년에 훼손된 교각 일부를 원형 복원한 경우를 제외하곤, 돌덩이들 사이가 매우 견고하여 돌들이 유실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한다. 매년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볼수록 신비롭다. 다리를 놓은 고려 초기 선조들의 지혜와 당시의 다리 건축 기술도 매우 뛰어났음에 놀랍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하지만, 천년의 세월을 버틴 농다리는 굳이 안 두드려 봐도 될 듯하다.

이렇게 ‘천년의 신비’라고도 불리는 농다리는 충북 지방유형문화재 제28호이다. 소중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조상의 슬기를 배워가고자 축제의 테마로도 사용된다. 2000년부터 매년 8월경에 농다

리를 중심으로 기원제, 점등식, 백일장, 모형 만들기, 씨름대회 등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는 축제가 열려 지역민이 다함께 즐겨왔다. 아쉽게도 올해 제13회 진천 농다리 축제는 평소보다 빠른 6월 초에 열려서 시기를 놓친 난 참여하지 못했다. 그런데 장마 전에 진행됐기 때문에 날씨가 맑아 성황리에 행사를 치렀다고 한다. 보통 8월 말에 개최될 때는 축제 개막을 앞두고 비가 많이 내리면서 농다리 교각 일부가 유실되기도 하고, 축제 기간에 많은 비가 내려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곤 했다. 다행히 올해는 하늘이 도와서, 축제 기간 내내 화창하여 지역민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참여한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한다. 날씨와 밀접한 나로선 팬스레 마음이 뿌듯해졌다.

비록 가장 큰 행사는 지나갔지만, 천년의 세월이 흘러도 항상 제 자리에 든든히 버티고 서서 사람들을 맞이하는 농다리. 그 역사가 오래된 만큼 다양한 전설과 삶이 담겨있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진정한 힐링을 할 수 있는 곳. 초평저수지를 둘러싼 주변 산책로와 쉼의 공간인 수변테크, 그리고 시원히 떨어지는 폭포와 농다리의 절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정자까지... 올 여름 어디로 휴가를 갈지 고민 중이라면, 진천 농다리로 자연의 향기를 맡으러 가보는 건 어떨까? 바람 솔솔 부는 탁 트인 정자에서 수박 하나 베어 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을 것이다.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 낮보다 밤이 화려한 도시 '홍콩'



한동영 / 전주기상대



드디어 출발이다.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여행이기에 오랜만에 잠을 설쳤다. 8주기로 근무형태가 바뀌면서 비번 날을 알차게 활용할 방법을 찾던 중 홍콩 여행을 선택했다.

홍콩은 거리도 가깝고 도시가 크지도 않아 2박 3일 일정으로 계획을 세웠다. 이번 여행의 취지가 많이 걷고, 많이 보고, 많이 먹자기에 여행경비를 최소화했다. 이 여행엔 입사동기인 정읍 기상대의 이재호 주무관도 함께 했다.

홍콩에 도착한 우리를 처음 맞이한 것은 바로 무더위였다. 덥고 습한 날씨가 한국의 7~8월 무더위를 겪는 듯했다. 우리가 묵을 숙소는 유니온 하우스라는 게스트 하우스로, 시설도 깨끗하고

한국분이 운영하고 있어서 친근한 느낌을 받았다.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던 우리는 배가 고파 일단 하버시티(Harbour City) 쇼핑센터에서 딤섬과 국수를 먹었다. 딤섬은 우리나라 만두와 비슷했지만, 안에 뜨거운 국물이 들어있어서 자칫하면 입천장을 데일 수 있기에 조심히 먹어야 했다. 국수는 면발보다 소고기 육수 같은 국물이 일품이었다.

맛있는 식사를 뒤로하고 거리로 나왔다. 명품매장과 붐비는 사람들로 가득한 모습에 드디어 홍콩에 온 것을 실감했다. 빅토리아 항에 큰 오리까 정박중이었는데, 6개국을 돌아서 현재 홍콩에 있는 중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빅토리아 항의 명소 중 하나인 시계탑으로 갔다. 이 시계탑은 찻사또이의 상징으로 44m의 뾰족한 모양이다. 1915년에 완성되었으며, 동서남북 사면에 4개의 시계가 달려있다.

한낮의 열기가 약하게 식어갈 즈음, 우리는 여인가(Ladise' Market)에 가기 위해 왕콕역으로 갔다. 이곳은 저렴한 비용으로 살 수 있는 각종 의류, 시계,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의 잡동사니가 가득한 곳이었다. 한국의 동대문과 흡사한 풍경이었다.





홍콩의 야경을 보기 위해 다시 빅토리아 항으로 향했다. 첫날은 다행히도 날씨가 좋아서 홍콩섬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우리가 도착할 무렵, 이미 빅토리아 항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바다 건너 홍콩섬의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낮보다 밤이 화려한 도시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였다.

홍콩의 야경에 심취하며 걷다 보니, 스타의 거리에 다다랐다. 처음 홍콩여행을 계획할 때, 홍콩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쇼핑과 이곳 스타의 거리였다. 많은 스타의 핸드프린팅을 비롯하여 각종 조형물들이 있었다. 그중 단연 인기스타는 역시 이소룡이었다. 역동적인 포즈가 화려한 홍콩의 밤과 잘 어울렸다. 이렇게 자정이 가까워 올 무렵에서야 홍콩에서의 첫날을 마감할 수 있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았다. 하지만 하늘은 잔뜩 흐렸고, 금방이라도 비가 올 듯했다. 우려와 염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추적추적 내리던 빗줄기는 금세 굵어졌다. 하지만 그

렇다고 시간을 그냥 흘러보낼 순 없었다. 그래서 카우룽 반도의 전경을 보기 위해 홍콩섬 IFC mall로 향했다. 그런데 기대감이 너무 컸던 것일까? 날이 밝은 홍콩은 마치 낮잠을 자고 있는 사람 같았다. 역시 홍콩은 낮보다는 저녁이 매력적인 도시였다.

우리는 힐사이드 에스컬레이터(Hillside Escalator)를 타고 소호(SOHO)로 향했다. 도시 한복판에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독특하기도 했고, 편리하기도 했다.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보는 도시는 마치 아기자기한 재미집 같았다.

개미굴을 지나 우리가 도착한 곳은 피자 익스프레스 음식점이었다. 연어피자가 맛있다고 추천을 받아 오게 된 곳이었다. 피자는 팬피자 형식이었는데 그 위에 연어가 올려 있었다.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는 것 같았고, 특히 살짝 익힌 연어가 먹자마자 입에서 녹아내렸다.

다음으로 간 곳은 입법부 건물과 황후상 광장이었다. 두 장소는 바로 붙어 있

어서 패키지로 관람하였다. 높은 빌딩들 사이에 있는 이 고전적인 건물은 마치 과거와 현재가 존재하는 것 같았다.

이번엔 휴식을 위해 RICKS라는 작은 음식점으로 갔다. 우리는 호가든 맥주와 양고기, 샐러드를 주문하였다. 맥주가 약간 씩씩했는데, 끝맛에는 레몬이 약간 가미돼서 정말 일품이었다. 한잔을 다 마실 때쯤 주인이 갑자기 생맥주 한잔을 더 주었다. Happy Time이라는 이벤트가 있어서, 오후 7시 이전엔 맥주를 주문하는 손님들에게 한잔을 더 주는 것이라고 했다. 홍콩에서 이런 행운을 얻자, 기분이 더욱 좋아졌다.

술을 마시고 나오자 어느덧 밤이 되었다. 소호는 마치 거리 전체가 하나의 큰 술집이 된 것처럼 시끌벅적했다. 첫날을 보낸 카우룽 반도가 쇼핑의 도시였다면, 이곳 홍콩섬은 술의 도시였다.

2박 3일 동안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알찬 여행이었다. 짧았지만 알찬 여행, 하지만 큰 도시 홍콩에서의 추억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 보고 느끼고 맛본 '힐링 제주'



**임병환**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따뜻한 햇살이 돌을 빛내주고, 부드러운 파도소리와 촉촉한 공기가 함께하는 제주도. 그곳 남쪽에 위치한 국립기상연구소 신청사에서 공사감독을 하며, 보고 느끼고 맛보고 온 제주도 탐방을 소개하고자 한다.

작년 11월, 서귀포에 위치한 혁신도시 부지에서 삭막한 콘크리트를 입은 국립기상연구소가 나를 맞이했다. 황량한 그 모습에 '과연 내가 여기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안게 되었다. 다행히 지난 5월 말에 공사감독 수행으로 다시 와보니, 완공되어가는 국립기상연구소 신청사와 높이 올라간 LH아파트, 그리고 그뻘 보이지 않던 주변 경관까지 더해져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리고 공사감독을 하며 제주도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기상가족에게도 이곳의 풍경과 정취를 함께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이제부터 12일간 사진에 담아온 제주도를 소개하겠다. 참, 아는 지인이 이런 말을 하였다. 같은 제주도 출장을 가도 자신이 간 출장과 내가 간 출장은 왜 그리도 다르냐고. 비결은 바로 체력이다. 어서 기상청 동호회인 '몸짱클럽'에 가입하길 바란다.



### 제주도에서 가장 감성이 넘치는 카페 '고래가 될 까꿍'

요즘 제주도에서 제일 뜨고 있는 카페인 월정리 해수욕장에 위치한 '고래가 될 까꿍'이다. 주인장의 조금은 감성적인 글귀와 그림, 인테리어를 만나볼 수 있는 이 카페는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많은 소재를 제공하고 있어 인기가 많다. 특히 주말엔 사람이 더 많아 좋은 포인트에서 원하는 사진을 찍기가 힘들니 평일 방문을 추천한다.

###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섬으로 알려진 마라도. 사실 최남단은 이어도인데 마라도가 유명해서 그런지 잘못 알려진 것 같다. 마라도에 가는 방법은 송악산 쪽에 있는 항구보다 모슬포항에서 가는 게 좋다. 돌아오는 배는 모슬포항 출발 유람선보다 2시간 30분 후의 선박을 이용하면, 마라도에서 유명한 자장면도 먹을 수 있고 여유롭게 풍경을 둘러볼 수도 있다.





### 인간 세상의 죄악을 슬퍼하는 여신의 눈물이 흐르는 '산방산'

거대한 용암체로 이루어진 산방산은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경관을 자랑한다. 15분쯤 계단과 경사로를 올라가면, 자연동굴로 이루어진 산방굴사도 만나볼 수 있다. 올라갈 때 좀 힘들긴 하지만 '산방덕의 눈물'이라는 전설을 가진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약수가 건강을 지켜준다고 하니 꼭 한 잔하고 내려오길 바란다.

### 하천과 바다의 조우 '쇠소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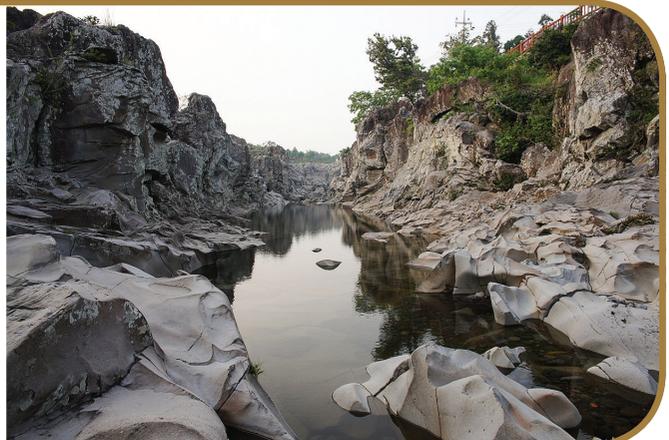
2011년에 문화재청이 외돌개, 산방산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 명소로 지정한 쇠소깍이다. 이곳에서는 투명 카약과 제주 전통 목선인 '테우'를 타볼 수 있는데, 투명 카약은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못 탈 때도 많다고 하니, 주말에 방문하려면 꼭 미리 예약해야 한다. 드라마 <추노>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 하늘을 향한 바다와 바위의 일침 '외돌개'

바다 가운데에서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분출된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진 높이 20m의 바위가 바로 외돌개이다. 이곳은 최영 장군과 얽힌 이야기도 있어서 '장군석'이라고도 한다. 주변에서 아름다운 올레길 산책을 즐기다가 해질녘 즈음에 방문하면, 무척이나 아름다운 일몰 풍경이 곁들여진 외돌개를 만나볼 수 있다. 드라마 <대장금>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담아온 곳들 중에 5곳 밖에 소개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발간을 생각중인 제주 사진집의 초안이 될 듯하다. '사진은 더 하기가 아닌 빼기의 미학'이라는 말처럼, 내년부터 시작될 제주 생활은 그동안 쌓였던 가슴과 머릿속의 찌꺼기들을 빼내고, 새로운 것들로 채워나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이만 제주 전문록에 가까운 공사감독 후기를 마무리한다.



# 장마철 건강관리 비법



오범조 / 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장마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 음식물이 상하기 쉽다. 또한 각종 수인성 질환이 쉽게 발생하고, 여러 가지 피부병과 알레르기성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햇빛 노출 시간이 감소하여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기압의 변화에 의해 관절염이 악화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장마철 기후의 특징과 건강상 유의할 점들을 열거해보았다.

## 식중독

장마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서 세균의 번식속도가 빨라진다. 또 살균효과가 있는 햇빛의 자외선 양이 장마철에 줄어드는 것도 세균이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준다. 세균성 이질은 오염된 물과 음식물에 의해서 주로 전파되며, 매우 적은 양의 세균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12시간~7일(평균 1~3일)의 잠복기를 거쳐 갑자기 심한 복통과 오한, 그리고 열이 나서 설사가 시작된다. 대변에는 피나 고름, 점액이 섞여 나올 수도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물과 음식물 끓여 먹기, 조리기구 소독과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이 중요하다. 식중독은 인체의 피부에 많이 서식하는 포도상구균에서 나오는 장독소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다룰 때 포도상구균이 음식에 오염되어 음식 속에서 번식을 하고 독소를 분비한다. 포도상구균 식중독은 음식을 섭취한 후, 수 시간 내에 증상이 나타나고 세균이 배출하는 독소에 의해 일어난다. 끓이거나 충분히 열을 가해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피부병과 알레르기 질환

기온과 습도가 높은 장마철은 곰팡이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다. 곰팡이나 세균은 직접적으로 접촉성 피부염이나 무좀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곰팡이 균들에서 나오는 포자가 집안 공기에 떠돌아다니면서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들에게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천식 등을 유발시킨다. 따라서 곰팡이 증식을 막기 위해 집안을 자주 환기시키고 카펫 등 습기가 많이 차는 바닥재는 치워두는 것이 좋다. 또한 곰팡이에 취약한 에어컨이나 환풍기의 필터도 자주 청소해야 하며, 젖은 옷이나 신발 등은 건조기를 이용하거나 햇빛이 날 때 수시로 잘 말려 보관토록 해야 한다.





즉,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멜라토닌 분비는 멈추고,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세로토닌 분비가 멈춘다.

### 우울증

멜라토닌은 빛의 양이 없는 밤에 분비되어 잠을 자게 만드는 호르몬이다. 세로토닌은 빛의 양과 비례하며 낮에 분비되는 것으로 사람의 기분을 평온하게 하는 호르몬이다. 이 중 특히 우울증과 관련된 것은 세로토닌이며, 멜라토닌은 뇌 속의 송과선이라는 부위에서 밤에 집중적으로 분비된다.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에 의해 조절되며 불면증이나 시차 적응과 관련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장마철에는 햇빛이 줄어들게 되어 세로토닌의 분비가 저하돼, 밤처럼 기분이 처지고 몸도 나른해져서 우울증이 유발되기 쉬워진다. 특히, 장마철에는 일상에서 수면시간을 조절해 신체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전날 취침시간과 관계없이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실내를 최대한 밝게 하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반복하는 것도 숙면과 장마철 우울증 극복에 도움을 준다.

### 관절염

비 오는 날 무릎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을 본 기억들이 있을 텐데, 관절염과 습한 날씨와의 연관성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기온이 낮아지고 습도가 올라가며 기압이 낮아지는 장마철의 경우, 외부 기압이 낮아짐으로써 상대적으로 관절 내의 압력은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 관절내의 활액 막에 분포된 신경이 자극을 받아 통증을 심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관절 부위가 붓지 않고 아프기만 할 때에는 더운 물수건이나 따뜻한 목욕으로 온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다. 관절은 기압 뿐 아니라 온도의 영향도 받으므로, 장마철에는 실내의 온도차를 5도 이내로 유지하고 습도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 날씨, 패션의 꽃을 피우다



차보경  
San Francisco Umbrella 대표



“기상청에서 패션쇼를 한다고?!”  
‘날씨 패션쇼’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다. 다소 생소할 수 있겠지만, 날씨와 패션의 관계를 따지자면 수없이 할 이야기가 많다.

패션 산업의 매출은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날씨를 상품을 기획하고 만들 때부터 고려대상이 된다. 상품 아이템의 출고 시기와 출고량도 날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바뀌기도 한다. ‘날씨 패션 비즈니스’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비가 오는 장마철에는 면이나 마같은 물에 약한 제품보다는, 방수 재질이나 밝은 색 컬러를 사용한 제품의 매출이 크게 오르게 된다. 그래서 업체들은 이런 매출변화에 맞추어 레인코트나 레인바지 등 특성화된 제품을 출시한다. 날씨변화에 따라 상품을 기획하고 생산량과 출고시기를 조절하여 재고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봄** 만물이 생성하듯 피어오르는 꽃을 주제로, 가볍고 화려하며 아름다운 생명력을 지닌 자연과 하나 된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역동적인 투명블루와 화이트로 ‘물’에서 나타나는 자유로움을 다채롭게 표현하였다. 아름다운 디지털영상과 함께 해 의상이 더욱 돋보였다.

**여름**



**가을** 낙엽이 지듯 서정적인 분위기지만 '불'의 이미지인 강렬하고도 열정적인 레드 중심, 클래식한 재단과 다양한 소재들과 함께 연출하였다.



**겨울** 예술적인 감성으로 '바람'이 주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담았다. 화이트를 중심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소재들이 어우러진 새로운 질루엣이 탄생했다.

작년 한 해는 그야말로 기상이변의 해였다. 당연히 날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그 어느 때 보다 컸고, 날씨가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졌다. 날씨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분석이 나옴과 동시에 패션도 좀 더 다른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

패션은 대중을 보다 가깝게 느끼게 하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촉매제이자 브리지 역할까지 한다. 이유는 예전의 제품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이 옮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이윤을 고려할 때도 패션은 제품의 부가가치를 극단적으로 높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패션계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움직임은 패션 콜라보레이션(Fashion Collaboration)이라는 개념이다.

콜라보레이션은 '모두 일하는' 혹은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동 출연, 경연, 합작, 공동 작업을 뜻한다. 즉, 서로 다른 두 형태가 만나 각자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 성공적인 콜라보레이션은 경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협업'으로 상호 혁신시킬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두 가지 가치를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1+1=2'가 아닌 진정한 진화의 과정이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드가 유니클로의 디자인을 담당한다거나, 유명 아티스트가 에르메스와 협업하여 리미티드 스카프를 만드는 것 등이다.

우연히 방문한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기상사진 수상작들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인간과 기상, 서로 작용하여 일부가 되고 그것은 다시 하나가 되어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런 나의 생각은 패션쇼를 계획하면서 더 큰 의미를 찾았고, 우주 만물을 이루는 원소인 지수화풍(地水火風), 즉 땅과 물, 불, 바람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4계절의 색을 덧입혔다. 이렇게 '합'의 형태를 이루어 진정한 콜라보레이션에 의미를 더한 문화예술행사로 거듭난 것이 바로 '날씨 패션쇼'이다.

"같은 거리를 건너라도 본인이 관심 있는 것만 눈에 보인다. 자신이 세계를 보던 관점과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야 비로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도서 「먼저 행동하고 생각하면 성공할 수 있다」의 저자 사와다 히데오의 말이다.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을 보여준 '날씨 패션쇼'는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세명대학교 패션디자이너 꿈나무들이 통합, 융합, 통섭의 의미에 아름다움을 더해 1년을 준비한 졸업 작품이다. 기상청의 후원으로 진행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동지를 찾아 떠나는 파랑새와 같은 나의 제자들에게 아름다운 4년의 마무리가 되어주었다.

*"기상청 관계자 분들, 정말 고맙네요! ^^"*

# Ah~ I'm a 웨더맨!



하종훈 / 원주기상대



## 알랑가 몰라~ 왜 웨더맨이 탄생했는지!

경찰, 소방관, 모델 등 다양한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수 사이의 '젠틀맨'을 패러디한 영상을 앞 다투어 내놓았다. 기상청 역시 대한민국의 날씨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멋진 패러디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스타 사이에게 '젠틀맨'이 있다면, 세계로 뻗어 나가는 대한민국 기상청에는 '웨더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취지의 '웨더맨'에 왜 내가 나오게 되었냐고?

작년 겨울, 기상청에서는 '슈퍼스타 KMA'라는 내부 행사가 열렸고, 당시 나를 비롯한 강원지방기상청 식구들이 영예로운 금상을 수상했다. 이 때 우리들의(특히 나의!) 끼와 재능을 눈여겨보던 많은 분들이 '웨더맨' 출연을 제안해왔다. 우리로선 기상청을 위해 이 한 몸! 기꺼이 바칠 수 있기에 흔쾌히 촬영에 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땐 꿈에도 몰랐다. 촬영이 이렇게 힘든 일일 줄이야!

## 아주 그냥 헉! 소리 나게 약! 소리 나게~

5월 15일, 서울 본청에 도착한 우리들은 그때부터 정신없이 이틀 동안 촬영 강행군을 진행했다. 생애 처음으로 메이크업도 받아보고, 반짝이 의상도 입고, 물과 바람 폭탄을 맞아가며 아주 그냥 말 그대로 헉! 소리 나게 약! 소리 나게 촬영에 임했다. 3분이 조금 넘는 시간을 위해 약 30개의 장면을 촬영해야 했다. 또한 연기력을 요구하는 장면도 많아서, 처음에 주인공인 웨더맨을 맡았다는 두근거림은 어느새 걱정으로 변하고 말았다.



알랑가 몰라 아리까리하면 확인해  
알랑가 몰라 태풍지진폭설 물어봐

더구나 근무 스케줄 때문에 2일 안에 촬영을 끝내야 했다. 더욱이 저녁에는 야외 촬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낮에 최대한 모든 촬영을 끝내야 했다. 시간의 촉박함은 더욱 우리를 집중하게 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장면이 2~3번 촬영으로 OK 사인을 받았다. 사실 촬영 전에는 초특급 스타와 함께 출연하고 싶은 욕심과 환상이 있었지만, 우리 역시 명품 연기를 한 최고의 스타라 생각하며 열심히 촬영에 임했다.

### 우산 챙겨라

막상 출연해보니, 시놉시스를 변경해야 할 상황들도 생겼다. 생각보다 많이 재미가 없든지, 장면이 너무 밋밋하다든지 같은 상황에서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머리를 맞대어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실제로 촬영장에서도 우리들의 애드립과 즉석 아이디어로 촬영을 진행하기도 했다. ‘웨더맨’ 후렴구에 기상청에서 진행했던 우산 공모의 당선작들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다. 우산도 홍보할 수 있고, 장면은 더욱 예뻐지고~ 이것이 바로 핑도 먹고 알도 먹는 일석이조가 아닐까? 후훗!

### 천둥, 번개, 웨더맨

정신없이 지나간 이틀간의 촬영 후, 우리들은 다시 각자의 일터로 복귀했다. 그러나 나는 주인공 사이 역할을 맡아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기에, 매일 ‘웨더맨’ 영상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본 영상! 생각보다 잘 나왔지만, 연기자에게 100% 만족할 만한 작품은 없다는 말

이 현실로 다가왔다. 실수한 부분도 눈에 띄고,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남았지만 보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지인들의 반응이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이 반응 덕분에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찌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웬~걸? 알아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

### 우리 모두가 웨더맨!

촬영이 끝난 후, ‘젠틀맨’ 노래를 들으면 내 입에선 저절로 “마더~ 파더~ 웨더맨~”이 먼저 튀어나온다. 그만큼 ‘웨더맨’은 내게 기상청 홍보와 더불어 내 끼와 노력을 발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이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만 만들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웨더맨’은 시나리오, 연출, 음향, 녹음, 캐스팅, 연기 등 모든 것을 기상청 직원들의 힘을 모아 제작했다. 나 혼자 했다면, 절대 이와 같은 명품 홍보영상인 ‘웨더맨’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가오는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즐겁게 촬영했는데, 우리들의 바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장마철인 지금. 더욱 정확한 예보와 기상정보를 알리고, 국민들이 기상정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 올 여름도 기상청의 웨더맨과 웨더우먼들 모두 파이팅! ”



※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웨더맨’을 검색해 보세요! ^^

# 낮 놓고 ‘가’이 뭔가요?



Adam Clayton / 수치지료응용과



는 나 정도의 나이와 지식을 가진 일반인의 경우, 불어는 유사한 문법과 단어 때문에 575~600시간이 필요한 반면, 한국어는 2200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즉, 한국어를 익히는데 불어보다 거의 4배의 시간적인 노력이 필요한 셈이다.

그나마 나는 일본에 4년 가까이 산 경험이 있어 한국 말을 배우기에 유리하였다. 일본어의 문법은 한국어와 매우 비슷한데, 특히 ‘가방’, ‘준비’, ‘약속’, ‘무료’라는 단어는 거의 일본어와 같은 발음이라 내가 기억하기에도 쉬웠다.

작년에 한국 기상청으로 파견 근무를 나온 이래로 나의 큰 즐거움 중의 하나는 바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다. 낯선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지루함을 잊게 해준다.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소에서 각종 간판들을 훑어보면서 저것들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암호를 해독하듯이 풀다보면, 어떻게 시간 가는지 모를 정도로 즐거워진다.

그 옛날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과 그의 학자들은 조선이라는 시대적 배경 때문에 노예를 거느렸을지라도, 훨씬 많은 사람들을 문맹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줬으니 진정한 영웅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한국어는 영어를 모태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정부조직 FSI(Foreign Service Institute)

나는 직접 한글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였다. 몇몇 사람은 본인에게 익숙한 다른 글자를 사용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지만, 그것은 한글 배우는 속도를 느리게 할 뿐이다. 결국은 한글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다.

훈민정음 해례에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을 마치고도 전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이라도 열흘이면 한글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쓰여 있다. 이 말대로라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그만큼 한글이 배우기 쉽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 한글은 배우기 어려운 언어임에는 분명하다. 내 생각에 가장 어려운 것은 영어에서 쓰이지 않는 소리들을 발음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교재에서는 대부분의 글자들 소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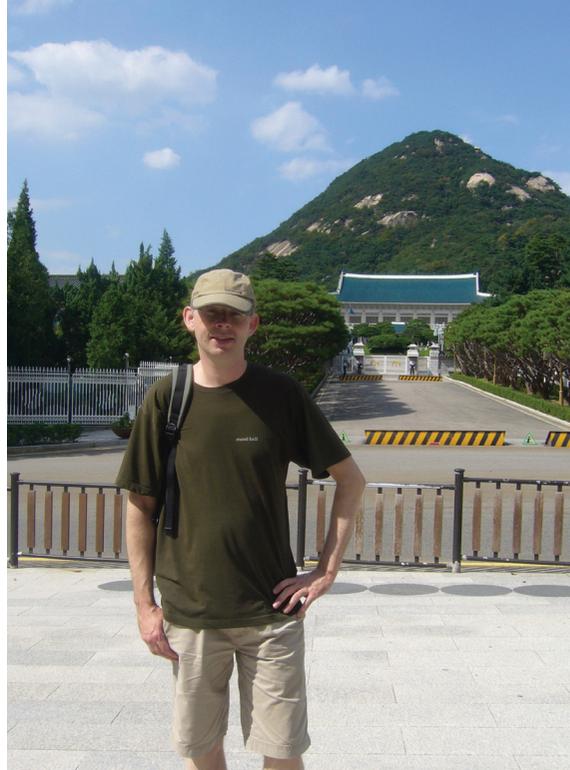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내 교재에는 'fur'의 u가 '너', yoga의 yo가 '뇨'로 표현되어 있다(한국어와 영어의 발음상 차이를 정확히 설명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다). 이를 어찌할 것인가! 결국, 나는 많은 오디오 예시들이 들어있는 좋은 책을 발견했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난 후, 첫 번째 한국어 교재를 완독했다. 그러나 “저는 3학년이에요”, 혹은 “다음 방학에 뭐 할 거예요?” 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은 내 일상생활에서 그다지 필요하지가 않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내 첫 번째 책에서 무려 8번째 장을 지나야 겨우 배우는 말이고, 색깔의 이름은 아직 배우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좋은 교재와 선생님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실제 상황에서는 한국어를 쓰는 것이 겁이 나고, 주변에 영어가 가능한 누군가를 찾지 못한다면 만국공통어인 손 내젓기나 손가락 가리키기 등을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많은 한국인들이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들인 영어를 사용할 기회를 얻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 난 그럴 경우 영어로 기꺼이 그들과 대화한다.

최근에 나는 'talktomeinkorean.com'이라는 아주 훌륭한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유용한 숙어들을 배울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훌륭한 한국어 수업을 듣다 보니, 내 주위에서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도 구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이왕이면 기상청 사람이면 더욱 좋겠다. 그들은 좋은 선생님일 뿐 아니라, 그들의 강습비 또한 무료니까(^). 나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답례로, 나는 그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도울 것이다.

“We need to finish it until Friday”, “I lost my weight”, “Can you borrow me a pen?”, “I came lately today”



위의 문장들은 내가 종종 들으면 고쳐주는 매우 흔한 실수인데, 이에 대해 옳은 문장은 바로 이것이다. “We need to finish it by Friday”, “I lost weight”, “Can you lend me a pen?”, “I came late today”

그런데 앞서와 같은 실수 외에 남성과 여성을 섞는 실수인 “She is my husband”, “He is my sister”와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다.

가끔은 어눌한 영어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다 웃음을 참을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어떤 이의 영어를 보고 웃고 있을 때, 그들이 내 한국어 실력을 보고 얼마나 웃을지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반성하게 되면서 열심히 한국어 공부에 매진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더불어, 나와 함께 한국어-영어 언어교환을 할 직원이 있다면 연락해주면 더없이 고마울 것 같다. 아무쪼록, 남은 파견 기간 동안 한국어 공부는 물론, 한국인들과의 교감이 더 깊게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본다.



# ‘기후캠프’ 최우수동아리의 성공 비결!



김경섭 / 창원남고등학교 교사

지금부터 기상청 청소년 기후변화 동아리 1회 대회에서 최우수동아리로 선정되었던 ‘매지구름’ 1기의 이야기와 올해 다시 한 번 최우수동아리의 꿈을 품고 활동을 시작한 2기의 이야기를 함께 해볼까 한다.

## ‘매지구름’ 동아리 탄생의 서막

나는 화학교과를 가르치는 교사이지만, 최근 자주 느끼게 되는 이상기후현상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마침 그 시기에 창원기상대에서 주관한 ‘과학교사 기후변화동아리’ 모집공문을 보고 작년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동아리를 통해, 기상청에서 청소년 기후변화 동아리 대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본교 2학년 학생 다섯 명을 모아 시작하게 된 것이 ‘매지구름’ 동아리의 시작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대회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날 뻔했던 것이, 기후에 대한 작은 관심 하나로 시작되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최우수상이라는

영광뿐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걸 배울 수 있게 해주어서 참으로 감사하다.

## 성공비결은 개성 넘치는 다섯 아이들

솔직히 청소년 기후변화 동아리의 대회 성격도 잘 모르고, 활동도 안 해본 상태에서 학생의 선발에서부터 활동주제를 잡고 계획서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은 않았다. ‘다섯 명의 학생은 누굴 뽑아야 하나?’ 이런 고심 끝에 처음 생각난 친구가 있었다. 지구과학 만큼은 누구보다 잘하고 재미있어하는 친구 강정욱!

“정욱아, 청소년 기후변화 동아리라고 있는데 다섯 명을 뽑아야 돼. 너랑 친하면서 지구과학 좋아하고, 끼가 좀 있는 애들로 한번 알아와 봐.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다잉~”

다른 과학관련 대회를 준비할 때 나는 학생들의 성격과 스펙의 필요성, 기타 대회 수상실력들이 학생선발의 기준이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대회 성격을 잘 몰랐지만 3개월간 같이 자료도 조사하고 UCC, 로고송, 다양한 홍보활동들을 같이하려면 친한 녀석들끼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공부만하는 아이들로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오히려 제한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따른 예상이었다.

정욱이는 같은 반 친구 4명을 모아왔다. 처음엔 ‘헉! 이 녀석들로 뭐가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식을 완전히 깨버린 아이들로 구성되었다.



그래도 내가 아이들을 모을 때 한 말도 있고 해서 큰 기대 없이 동아리를 시작했다. 그땐 몰랐다. 이 녀석들이 뭉쳐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될 줄을 말이다.

### 너희가 주인! 쌤은 조수~

활동 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창원기상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지조차 크게 생각해보지 않은 상황이라 난감했는데, 이것저것 연구해 볼만한 주제를 알려주고,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방향도 코치를 해주었다. 덕분에 아이들과 나는 창원지역의 특산품인 단감의 재배와 기후변화와의 관계를 연구해 재미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었다.

단감 재배 농원에 가서 인터뷰도 해보고, 길거리에 나가 설문조사와 홍보활동도 하고, 논문과 관련 서적도 연구하고 식물재배에 대한 실험도 하는 등 생전 해보지 못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최종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었다. 재미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 또한 내가 가진 능력에 아이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수준으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 이어야 한다는 점! 교사는 때론 운전기사로, 때론 물주(?)로, 때론 보호자와 조인자로의 역할에만 충실해 주어야, 아이들의 창의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 짠~한 에피소드 속에 커져가는 추억

하지만 지역예선부터 순탄치가 않았다. 지역예선기간에 아이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게 되어서 참여를 못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기상청의 배려로, 제주지방기상청에 가서 실시간 화상으로 발표를 할 수 있었다. 나도 렌트카에 아이들을 태우고 제주도를 홍보했던 그때의 추억을 잊을 수가 없다.

본선 당일엔 새벽버스를 타기로 했는데, 내가 그만 늦잠을 자버렸다. 버스 출발 30분 전에 일어나서 씻고, 입고, 터미널에 도착하니 버스출발 1분전! “할렐루야~!” 아이들은 그 이후로 나를 레이서라 부른다. ^^; 그 외에도 시상식이 월요일 아침이라, 일요일에 미리 서울로 올라가 기상청 인근 찜질방에서 밤새 이야기꽃을 펼쳤던 추억과 상금으로 푸짐한 회식을 수차례(?) 했던 추억을 잊을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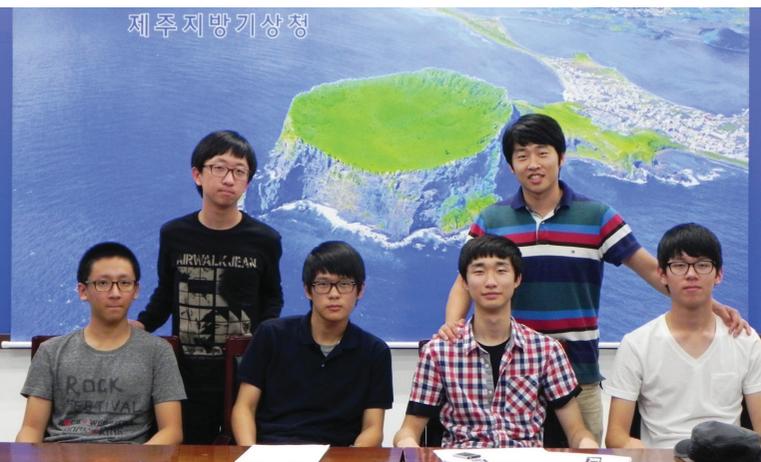
### 2013년에도 기필코!

올해는 1학년 학생들 네 명을 새롭게 선발했다. 그리고 이번엔 벚꽃을 주제로 잡고 시작을 해볼 것이다. 이번 기후캠프를 통해 서로 더 많이 친근해진 네 명의 아이들! 선배들의 기를 받아서 좋은 결실을 맺어주었으면 한다. 또한 무엇보다 즐거운 동아리 활동으로 많이 배우고 추억도 많이 쌓는 시간들이 되길 바란다.

“대지구를, 올해도 두둥실 잘 부탁해~!”



제주지방기상청



# 특명!

## 제주도를 탈출하라

1년에 2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 및 견학생들이 기상대의 앞마당을 찾곤 한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나 역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데, 드디어 직원들과 함께 ‘문화체험’이라는 여행의 기회를 얻게 됐다.

2박 3일의 길지 않은 일정하기에 대표 도시 2곳을 선정했다. 바로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과 신라의 고도(古都) 경주가 그곳이었다. 지난 5월, 먼저 제주도를 벗어나는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출발했다. 부산의 2간짜리 경전철을 타게 됐는데 무인운영이라 신기했고, 토큰(예전에, 버스 요금을 낼 때 돈을 대신하여 냈던 동전 모양의 주조물)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통행권도 새로웠다. 이렇게 경전철을 타면서 우리의 여행은 시작되었다.

아직 어둠이 내리기는 한참 남은 시간. 사직구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일행은 야구장을 찾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곳의 응원가와 분위기, 더구나 최고의 열정을 보여주는 롯데의 홈구장을 찾았다는 설렘이 무척이나 이색적이었다. 롯데와 LG의 경기는 기막힌 경기력을 보인 홈팀의 승리로 끝나, 부산 팬들의 뜨거운 환호성을 느낄 수 있었다.



함영모 / 고산기상대

어둠이 내릴수록 더욱 빛나는 조명과 푸른 잔디가 한 동안 야구 중계를 볼 때마다 떠오를 것이다.

다음날 아침, 숙소에서 주는 가벼운 식사를 마치고 천년의 고도 경주로 향했다. 역사적으로 경주는 992년간 신라의 수도였기에, 경주의 역사가 곧 신라의 역사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신라 말 경애왕(景哀王)이 후백제 견훤(甄萱)의 습격으로 최후를 맞이한 비극의 장소로 알려진 사적 1호 경주 포석정지(鮑石亭址)는 임금들이 연회를 베풀며 잔을 띄우고 시를 읊었던 곳이다. 굽이쳐 흐르는 물이 소용돌이 현상을 일으키는 곳에서 잔을 머물게 하여 시를 읊는 시간을 늘리는 지혜가 담긴 굉장히 과학적인 구조물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물이 흐르고 잔을 띄울 수 있다면 더 좋은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경주는 발길 두는 곳마다 신라 역사 속의 거리를 걷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눈앞 여기저기에 많은 유적이 즐비한 곳이다. 그래선지 찾는 곳마다 카메라를 들고 선 관광객들로 넘쳐났는데, 과거 학창시절 수학여행으로 왔던 때와는 다르다는 느낌을 언뜻 받



을 수 있었다. 많은 외국인이 주변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이제 ‘관광 대한민국’이란 느낌이 과거 어느 때보다 진하게 다가왔다.

자작나무 껍질에 하늘을 나는 말이 그려진 말다래가 출토되었다 해서 이름 붙여진 천마총(天馬塚), 선덕여왕 때로 추측되는 건축물로 362개의 돌로 지어졌고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瞻星臺), 신라 왕궁의 별궁으로 인공연못으로 유명한 안압지(雁鴨池), 신라시대 유물 1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 경주국립박물관 등 신라의 역사 앞에서 선조의 위대함과 지혜로움에 새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잃어버린 알 수 없는 소중한 유물들이 훨씬 많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 안타까움 또한 진하게 남았다.

정말이지 볼 건 많은데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아쉬움을 뒤로하고 두 개의 아름다운 탑이 있는 불국사로 다시 여정을 이어갔다. 때마침 석가탄신일이 얼마 남지 않아 형형색색의 등들이 여기저기 하늘을 수놓으며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佛國寺)는 신라 경덕왕(751) 10년에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현생의 부모를 위해 창건한 절로 전해지는데, 임진왜란으로 천년을 지켜온 많은 가람(伽藍)이 전소되어 40여 차례나 중수(重修)되기도 하였다. 1973년에 현재의 모습을 갖추어 1995년에 석굴암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처음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청운교와 백운교는 정말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없을 정도다. 청운교와 백운교를 우회하여 절 안으로 들어가

면 감탄이 절로 나오는 다보탑을 맞이하게 된다. 십 원 주화에 새겨진 모습은 단순하게 보이지만 역시나 실제로 보면 그 섬세함에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다. 석굴암 역시 신라 경덕왕 때 재상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 지은 것으로 30년에 걸쳐 완성한 석굴사원이다. 종교적 열정과 고도의 예술성을 과학적으로 그려낸 걸작임은 두 말할 나위 없으리라.



일정이 끝나는 마지막 날, 다시 부산을 찾았다. 200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21개국 정상들이 회의를 한 곳으로 동백섬 내에 위치하고 있는 누리마루 APEC 하우스! 문화,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유기적인 협력으로 정치적 불안함과 경제적 빈곤함이 없는 아시아·태평양을 기대해 보며, 부산의 봄비는 거리인 BIFF(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광장은 영화배우들의 길바닥에 페인팅 된 손들로 국제영화제거리임을 보여 줄 뿐, 많은 사람들과 이를 유혹하는 거리 음식과 상점들이 북적대는 명동과 인사동을 합친 듯한 인상을 주었다.

*“여행이란 우리가 사는 장소를 바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바꾸어주는 것이다” 라는 아나톨 프랑스의 말이 생각난다. 경주의 깊은 역사와 부산의 화려한 현재로 이어지는 여행이 일상에 지치고 갇혀있는 우리에게 아나톨 프랑스의 말처럼 되기를 기대해본다.*



# Shall we dance?



김은정 / 수치자료 통합 T/F팀



‘스텝-스텝-락스텝’, ‘원-투-트리플-트리플-’

5개월 전의 나에게는 전혀 와 닿지 않는 단어들이지만, 지금은 몸에 완전히 익숙해졌다.

‘직장인 취미생활 추천’으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상위에 랭크 되는 것들이 살사 댄스, 라틴 댄스, 스포츠 댄스 등 춤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내게 비교적 ‘덜’ 끈적이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 ‘스윙 댄스’지만, 내가 유연한 몸인 것도 아니고 리듬을 타는 것도 익숙지 않다 보니, 관심을 가지진 않았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스윙 댄스 동호회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단 하나였다.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가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순간, ‘이건 아니다!’ 라는 느낌이 들어 이것저것 취미거리를 찾던 중, 대학원 시절에 스윙 동호회 활동을 하던 친구가 추천해줬던 기억이 났다. 손품팔이를 통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동호회를 찾았는데, 용기를 내어 카페에 가입했음에도, 강좌 선착순 모집에 번번이 실패하였다. 그러다 지난 1월에 겨우 첫 번째 강좌를 등록할 수 있었다.

모르는 사람들과 원을 둘러싸고 어색한 인사를 하며 손을 마주잡았을 때, ‘왜 사람들이 이런 곳을 좋다고 했을까? 여긴 나와 맞지 않는 동호회 같다’라며 후회하는 마음이 반, ‘이왕 왔으니 이번 강좌는 듣고 끝내자’라는 마음 반으로 첫 수업을 견뎌냈다. 시간이 지나자, 어색함과 무안함이 어느새 사람들과의 친목으로 무뎌져갔다. 음악과 함께 해 흥이 나면서도 살도 슬그머니 빠진다는 장점이 어우러져, ‘어렵기



만 한' 것이 아닌 '때론 즐겁기도 한' 것으로 바뀌어갔다. 그리고곤 이젠 스윙 댄스를 주위에 권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아직은 5개월 차의 병아리 경력이지만, 스윙 댄스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스윙 댄스라는 것을 소개해 볼까 한다. 스윙 댄스는 사교댄스의 한 종류이며, 커플댄스이다. 물론, 커플이 꼭 남녀가 아니어도 상관 없다. 하지만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리딩을 해야 하고, 한 사람이 팔로잉을 해야 하는데, 보통의 경우 남성이 리딩을 하고 여성이 팔로잉을 한다. 스윙 댄스에는 세부적으로 여러 종류가 있으나 우리나라 동호회의 경우, 지터벅-린디합 순으로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그 외에 블루스, 발보아 등도 스윙 댄스에 속하는 세부 종류인데, 워크숍 형태로 강좌가 개설되기도 한다.

지터벅은 스텝-스텝-락스텝의 기본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보자가 비교적 쉽게 박자를 맞추어 따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스윙 댄스 입문자에게 친숙하다. 린디합이라고도 불리는 린디 과정은 원-투-트리플-트리플이 기본스텝이며, '스윙아웃'이라는 동작을 배우게 된다. 보통 사람들이 '스윙 댄스'라고 인식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게 되는 것이다. 지터벅 때와는 스텝이 다르기 때문에 지터벅을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고 린디 과정으로 넘어온 수강생(특히 리더)들에게는 다소 좌절과 방황이 오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과정을 잘 넘기게 되면 진정한 스윙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나 역시 린디 강습생이어서, 아직 과정을 넘기는 중이라 좌절의 시기를 겪고 있다.

스윙 댄스는 동호회를 중심으로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데, 서울의 경우 신림, 사당, 홍대, 건대 등에 큰 동호회들이 있어 서울에 사는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편이다. 특히 초급 강좌인 지터벅 클래스는 선착순 모집 시작 후, 수 시간 만에 강좌가 마감될 만큼 인기가 높은 편이다.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나는 보통 이하의 운동신경을 가져 춤과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강습 때에는 남들만큼 동작을 따라가는 것은 아예 포기했고, 강습 후 '제너럴' 이라고 불리는 시간에 동기들과 홀딩(리더와 팔로워가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을 통해 연습을 했다.

소위 주위에 연애하기 열악한 조건을 가진 싱글남녀들에게 스윙 댄스를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도 그럴 것이 공연, 강습, 제너럴, 엠티 등의 모임이 많아 친목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는 너는 거기서 남자친구를 만났느냐?"고 묻기도 하는데, 연애가 목적인 사람은 춤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춤을 즐기다 보면 따라오는 것이 좋은 사람과 인연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결혼식 피로연 때 제너럴 파티를 해보고 싶은 바람이 들게끔 만든 스윙 댄스.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한 번쯤 도전해 보기를 추천한다.



#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손태성 / 기상청

與誰同坐(여수동좌), 이 말은 ‘누구와 더불어 자리를 같이 할 것인가’이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의기투합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목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인 것이 참 마음에 든다.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이 항상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데 장장 40년이 넘도록 공직에 종사한 후엔 어떤 시작을 해야 할 것인가? 공직으로 종사한 기간, 즉 군대생활까지 포함하면 국가로부터 받은 봉급의 횟수가 500회가 넘게 된다. 대략 100만원 씩으로 계산하면 5억 원이 넘는 돈을 국민세금으로 받은 셈이다.

사람은 누구나 소원한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것도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한다. 기상직공무원으로 처음 근무를 시작한 곳이 제주공항이었다. 배를 타고 부임했고, 근무기간 9개월 반 동안 비행기를 제대로 타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첫 발령지 제주에서 맘속으로나마 비행기를 실컷 타고 싶다는 소원을 가졌었나보다.

2010년, 또 다시 제주도 근무명령을 받았다. 두 번째 제주근무 2년 2주 동안, 거의 매주 서울을 오가며 주말수업으로 전문상담사 2급 과정을 마쳤다. 아무래도 60회는 넘도록 제주도를 오갔으니 비행횟수는 120회가 넘을 것이다.

제주도 근무를 마치고는 천안기상대에 근무하게 되었다. 총 58주를 근무하는 동안, 기차와 전철을 종류별로 골고루 타보는 기회를 누리었다. 경상북도 김천시에서도 가장 오지에 속하는 내 고향은 산이 무척 깊은 곳이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에야 기차역에 처음 가봤는데, 그때도 기차를 원 없이 타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던가보다.

얕은 스스로 알려고 애쓴 만큼 자신의 지식이 될 뿐,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한참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시골에서 동네이장이라도 하려면 필요할 것이라고 입학한 고등학교 시절, 야간부를 다니며 낮에는 광고업계에 종사하였다. 고교시절 3년만 지나면 자동으로 똑똑해지는 줄 알고 열심히 세월만 보낸 탓에, 졸업장은 받았으나 머릿속은 학교 입학하기 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러나 광고 일을 하며 1988년 광고도장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졸업 후에는 북부산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고졸학력이 기상기술원양성소 입소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바로 지원을 하였다. 그 후, 흑시나가방끈 짚다고 직장에서 쫓겨날까봐 시작한 방송통신대학교 공부! 이제는 졸업장 가진 바보가 되지 말자고, 자신과 학문탐구에 정직하자고 다짐했었다.

지방근무 22년차로 6급 중참에 입성한 본청생활은 공부에 대한 오기를 더욱 발동케 하였다. 그래서 시작한 중국어공부에 3년간 바짝 조였더니, 중국어로의 유학 기회가 찾아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야간과정, 출근 전 새벽반 학원, 방송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등으로 유학 전부터 중국어에 제법 능통했다.

중국에서의 학문탐구는 대단히 좋은 기회였다. 기상학계에서는 중국에서 대기과학 학위과정을 마친 최초의 인물이 되었고, 온 식구가 중국생활을 하여 모두가 중국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이 두 명은 중국 대학을 졸업하였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는 ‘학위에 걸맞은 실력을 갖추었는가? 너무 모르는 것이 많지 않은가? 학문탐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등등 학문에 더욱 몰입했다. 5년이 넘도록 현업근무를 하면서 서강대 언론대학원, 한양대 사회교육원, 성균관대 유학대학원, 한국학 중앙연구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전례원, 충남대학교 평생교육원 등등에서 내 지식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달려도 보았다.

외국에서의 생활이 40개월이 되니, 그때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하여 계획을 세웠었다. 먼저 선진국민이 되는 조건을 나름대로 정하고 그것을 전 국민에게 보급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는 과학이 이룰 수 있는 것과 과학이 이룰 수 없는 것의 경계를 밝히는 일, 또한 그것들을 왜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론을 만드는 일이다. 다음으로는 위의 두 가지를 실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시행하고자 계획한 ‘선진국민의 길’에서는 국민 누구나 자신이 사는 이유를 쉽게 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라도 모두 통할 수 있는 즉, 남녀노소 동서고금에 두루 통하는 보편적인 원리를 구체화하자는 이야기이다.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것은 조그만 출판사와 중국전문서점을 운영하고 싶다. 연암 박지원이 석 달 정도를 여행하여 한국최대의 기행문 <열하일기>를 남겼듯이, 중국에서 생활하며 공부한 자료를 토대로 유익하고 재미있는 글을 쓰는 것이다. 될 수 있다면 몸과 기상, 몸과 역학, 과학과 기술, 과학과 도덕, 과학과 법 그리고 과학과 비과학 및 철학을 구별하는 지혜를 갖도록 하고 싶다.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하여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아서 곧바로 실천하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했으며, 왜 그랬는지를 성찰할 기회를 가졌다. 전문가 중에서 나를 아는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 나를 위한 공부와 수양을 체계적으로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신에 대한 배려를 더 많이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이다.

끝으로, 기상지식으로부터 소외돼 나를 필요로 하는 낙도에 10년 정도 살고 싶다. 아주 작았던 욕심에서 어떤 더 큰 욕망으로의 변신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이 글을 마무리한다.



# 기상기후자료로 창조경제의 물꼬를 트자



김영신 / 기획조정관

날이 따듯해지면서 바야흐로 야구 시즌이 되었다. 사람들은 왜 야구에 열광하는 걸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종목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기록의 스포츠’란 점이다. 경기 중에 벌어지는 사소한 상황 하나하나까지 기록으로 남겨지기 때문에, 경기 중이나 경기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은 이를 토대로 무궁무진한 이야기꽃을 피운다. 그리고 선수와 감독은 그간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기를 재구성함으로써 드라마 같은 상황을 연출해 나간다.

인류역사와 함께 시작된 기상업무도 항상 쉬지 않고 순간순간의 풍성한 데이터를 기록해 왔다. 우리나라가 근대기상업무를 시작한 1904년 이후부터 축적된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기상기후자료에 흥분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방대한 기상기후자료를 과거의 단순 통계로만 치부하기 때문이다. 항상 변하는 게 날씨고, 앞을 내다 봐야 하는데 지나간 자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기상기후자료 활용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창조경제가 화두다. 창조경제는 기술을 만드는 기술(메타기술), 창조·혁신 시장, 개방형 플랫폼이 핵심이다. 이러한 키워드만 놓고 보면 창조경제 구현에 기상기후업무만큼 적절한 아이টে은 없으며, 기상청은 그만한 능력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100여년이 넘는 막대한 양의 기상관측자료 외에도, 지난해 세계기상기구(WMO)로부터 승인받은 ‘세계기상정보센터’를 통해 전 세계 기상기후자료가 서울로 모이고 있다. 또한 다른 국가나 기관에서 부러워하는 IT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기상산업시장 규모도 가파르게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3천억 원을 돌파하였고, 5년 후에는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기상기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토대로 응용정보를 산출하여 범국가적 기후변화 적응정책 수립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글로벌을 선도하는 첨단 기상장비도 개발하고 있다.





날씨의 변동 폭이 커지고 이상기후가 빈발함에 따라 기상기후정보를 개인의 실생활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람도 늘어나고, 기업경영이나 이윤 창출에도 기상기후자료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사회적 분위기도 기상기후의 가치를 배가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효과적인 기상기후자료 활용으로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과제도 많다. 방대한 양의 자료를 국민 누구나 쉽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실질적 수요자들이 2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범국가적으로 기상기후자료를 활용·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품질관리와 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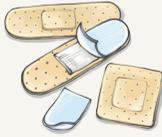
1980년대 중반에 발표된 세계기상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상에 대한 투자는 10~20배의 사회·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고 하였다. 더욱이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해, 현재는 그 가치가 훨씬 증가한 상태다. 이제는 기상기후를 알아야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기상기후자료를 활용하여 사회·경제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식기반의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할 시기가.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해 기상기후업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창조경제이고, 이를 통한 경제 부흥이 야구만큼이나 국민을 흥분시키는 일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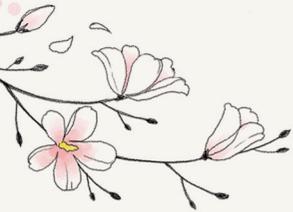


# 내 마음 속의 '반창꼬'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 소방관의 기도 중



주세희 /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다분석과

우리들 어린 시절의 소방관은 자신의 생명보다 위험에 처한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히 하는 정말 존경스럽고, 훌륭한 사람들이었다. 나 또한 소방관들의 그런 멋진 모습을 동경했다.

어렸을 적 집 근처에 소방서가 하나 있었다. 학교를 가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엄마 손 붙잡고 장을 보러 갈 때에도 그 소방서 앞을 지나야 했다. 항상 보이는 소방서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른다. 그래서일까? 내게 소방관은 의사보다 더 위대하고, 경찰관이나 군인들보다 더 용감한 사람이다.

'2030 솔로탈출' 이야기에 웬 소방관 타령이냐고? 올해로 32살. 30대 솔로에서 나를 멋지게 구해준 사람이 바로 소방관 아저씨(?)이기 때문이다. 요즘 소방관은 그런 것도 하나며 웃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의 소방관 아저씨는 조금 특별한 임무를 가졌다고나 할까.

우리의 만남은 보통의 인연들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시작되었다. 평소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라는 말에 지극히 동감하며, '용기 있는 자만이 미남(지극히 내 기준)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맘을 갖고 있었다. 뭐, 그렇다고 내가 남자 뒤통무니만 쫓아다닌 것은 절대! 아니다. ^^;

20대 중반부터 선보라는 부모님의 성화에 이왕 할 결혼이라면 내가 고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상황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인연을 만난 것이 아닌가 싶다.



작년 가을, 드디어 나에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동작구청에서 주관하는 미혼남녀를 위한 이벤트 ‘누구 내 반쪽을 보신 적 있나요’ 라는 포스터가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부모님을 제외하고 내가 결혼 하길 간절히 바라는 어느 분의 고마운 배려였다(장익상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나보는 미팅이다 보니, 인연이 될 한 사람을 알아봐야 한다는 것에 자신이 없어졌다. 그러다보니, 행사에 대한 기대도 줄어들게 되었다. 바보같이 용기를 내어 잡은 기회인데도 말이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서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다. 밤새 근무를 하고 인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라, 행사장으로 가는 발걸음마저 무거웠다. 결국 난 지각까지 하고야 말았다.

그런데, 새옹지마라고 해야 할까? 지각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몇몇 사람들의 이목을 받게 되었다. 행사가 진행 되는 내내, 내게 지나친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나의 반쪽이다.

행사 이후, 우리는 마주보고 있는 사무실 덕분에 거의 매일 만날 수 있었다. 채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점점 그 시간이 기다려지면서 ‘이 사람이 내 인연이구나, 나의 반쪽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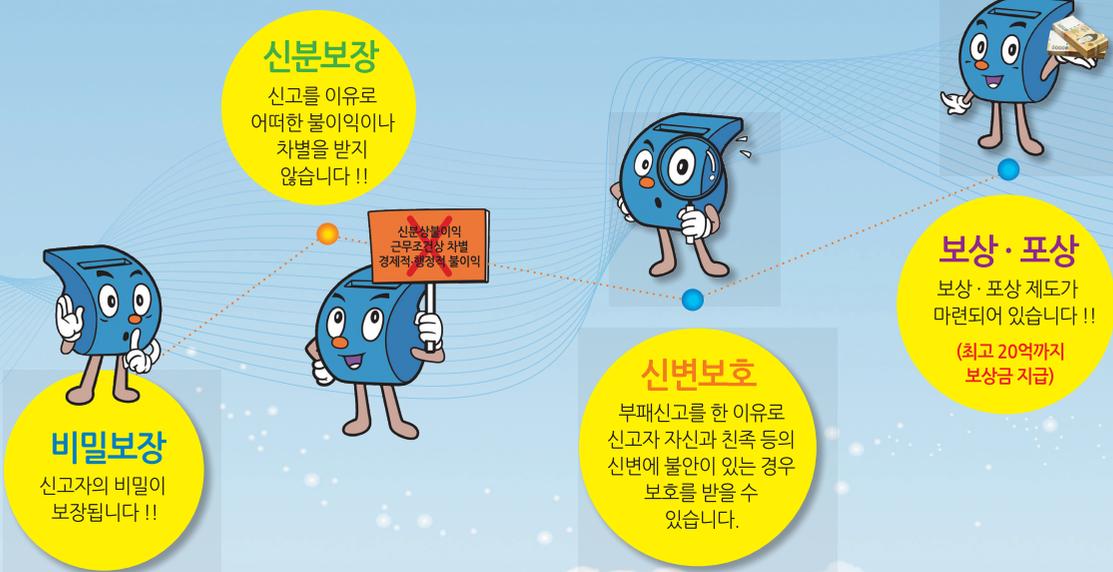
그 무렵, 출근하면서 눈도장 한 번, 퇴근하면서 눈도장 두 번... 손 좀 잡으려고 해도 동서남북 사방을 살피며 조심조심...(그래도 목격한 동료가 참 많다!)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 데이트하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감질 나는 연애에 조금씩 염증을 느껴,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다. 결국, 20대가 지나고 30대로 접어들면서 서로의 반쪽을 기다린 시간은 남들보다 길었지만, 스스로의 용기로 원하던 인연을 만났고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

물론, 내가 운이 좋았다고 말할 순 있지만 그 운조차 나의 용기가 불러온 기회가 아니었을까?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어 원하는 일들을 해보길 바란다. 과정에서 상처도 입고 좌절도 하겠지만, 그 끝에 반창고가 되어줄 꿈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으리라 응원해 본다.

# 당신의 용기에 안심을 더+ 합니다

비밀보장 · 신분보장 · 신변보호를 통해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패·공익침해신고  
보호보상 상담 **1398**  
안 · 상 · 근 · 받

정부민원대표전화 110

신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정홍원 국무총리, 기상청 격려 방문(6.22)

정 총리는 국가기상센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한 뒤, “정확하고 빠른 기상예보로 국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진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실천 서약식(6.7)

이일수 청장, 조주영 차장을 비롯하여 각 국장, 소속기관장 등 총 121명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서약식을 가졌다.



### 세계기상정보센터 개소식(6.13)

지구촌 기상기후정보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세계기상정보센터(GISC 서울)가 개소식을 갖고, 자료수집과 분석 등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2013년 보람음악회(6.14)

기상청 동호회인 '레인보우합창단'이 보라매병원 보람음악회에서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감동의 화음과 선율을 선사했다.



### 신안 해양기상부이 설치(6.21)

어민들의 생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풍랑특보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 해양기상부이를 설치했다.



### 제8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시상식(6.24)

기상정보활용 대상에 전력거래소, 기상산업진흥 부문에는 (주)정한전자시스템 등 3개 업체가 선정됐다.



### 후속정지궤도위성 관련부처 업무협약(6.25)

기상청과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기관들은 우주강국 실현을 위해, 다목적 기능을 갖춘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여럿이 하나되어 즐거워 Quiz!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5분의 여유만 있으면 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 이번 달 퀴즈

- 가수 사이의 노래를 패러디한 기상청의 홍보영상은?  
① 강남스타일 ② 날씨가스타일 ③ 젤맨 ④ 웨더맨
- 살아서 머물 만한 고을이란 뜻을 가진 '생거00'에서 00에 들어갈 말은?  
① 부천 ② 포천 ③ 진천 ④ 인천
- 낮에 분비되며 사람의 기분을 평온하게 해주는 호르몬은?  
① 세로토닌 ② 멜라토닌 ③ 아드레날린 ④ 에스트로겐

**지난 달 퀴즈 정답**  
1. ④ 자동제세동기  
2. ① 메라비언의 법칙  
3. ③ 걸어라

**지난 달 퀴즈 정답자**  
1. 김연태(서울) 2. 최원근(고양)  
3. 임형태(경기) 4. 이승우(광주)  
5. 조정현(목포)



## 퀴즈 정답은

퀴즈 정답은 7월 25일까지 전자메일(kimhy80@korea.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 · 주소 · 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하늘사랑」은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인사발령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명예퇴직	6.13	국립기상연구소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기상연구관(과장)	최영진
승진	6.24	관측기반국	지진관리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양진관
		예보국	예보정책과	부이사관(과장)	이미선
		제주지방기상청		부이사관(청장)	이재병
		기상레이더센터		부이사관(센터장)	김진국
명예퇴직	6.24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	부이사관(과장)	윤성덕
정년퇴직	6.30	기상청		기상연구관	이병열
전보	7.1	기상청	감사담당관	서기관	조기현
공로연수	7.1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술서기관(과장)	조서환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대	기술서기관(대장)	최기상
		강원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	기술서기관(대장)	박종식
		부산지방기상청	거창기상대	기상사무관(대장)	김상용
휴직	7.1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	기상사무관	김해연
파견근무	7.1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기술서기관	박 훈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전보	7.8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대	서기관(대장)	최경철
		부산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술서기관(과장)	조진대
		광주지방기상청	전주기상대	기술서기관(대장)	정병석
		강원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	기술서기관(대장)	이선기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	기술서기관(과장)	김금란
		국립기상연구소	지구환경시스템연구과	기상연구관(과장)	김영화
		부산지방기상청	청원기상대	기술서기관(대장)	홍성대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술서기관(과장)	장근일
승진	7.8	제주지방기상청	기후과	기술서기관(과장)	심재면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	기술서기관(과장)	원재광
		광주지방기상청	목포기상대	기술서기관(대장)	정덕환
		예보국	예보정책과	서기관	성인철
		예보국	수치모델개발과	기술서기관	김동준
		예보국	슈퍼컴퓨터운영과	기술서기관	우종규
관측기반국	지진감시과	기술서기관	유용규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 떠나세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행복 속으로 당신만의 여름특집이 있습니다

보물 찾았다!  
진흙이 묻으면 짜 때어요  
조개, 바지락, 꽃게  
갯벌의 보물들 찾았는데!  
문항어촌체험마을에 우리 가족의  
특별한 여름이 있습니다



|남해 문항어촌체험마을|

## 대한민국 구석구석 나만의 여름특집 이벤트

대한민국에는 참 다양한 여행지가 있습니다. 당신만의 특별한 여름을 만들어 보세요

**이벤트1. 내가 추천하는 여름 여행지 이벤트2.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름을 찍어라**

홈페이지에서 참여하시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검색해 보세요 (2013. 6.20~8.31)

[summer.visitkorea.or.kr](http://summer.visitkorea.or.kr)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참여기관 :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장경영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 하늘사랑

## 앱 출시 기념 이벤트

기상청 정기간행물 '하늘사랑'이  
모바일 앱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앱 사용 후 의견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예쁜 우산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2013년 7월 8일 (월) ~ 7월 31일 (수)

- 참여방법**
- 1 플레이 스토어에서 '기상청 하늘사랑'을 검색하여 앱을 다운 받는다.
  - 2 '소식지'와 '기상사진'을 자유롭게 감상한다.
  - 3 사용후기를 작성해 이벤트 페이지에 응모한다.

**당첨인원** 총 15명

**당첨자 발표** 2013년 8월 5일 (하늘사랑 앱 당첨자발표 메뉴 확인)

**이벤트 상품** 기상청 「2013 우산디자인」 공모 입상작 우산